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방법

Social Support and Child Rearing Methods in Female-Headed Single Parents

조 성 연
호서대학교 아동학전공

Cho, Song yon
Major in Children, Hoseo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support, understanding of the children's problem in the female-headed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 rearing methods. To obtain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8 female-headed single parents from March 3 to April 5, 2003. The contents of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analyzed by qualitative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emale-headed single parents were stuck for the social support and the relationships with parents-in-law were ruptured, especially. Secondly, female-headed single parents had well known about their children's daily life. Third, in the early stage of female-headed single parents, they had expressed the stresses in their hardship of life to their children, but it decreased whenever they were accustomed to their life.

Key words : female-headed single parent, social support, child rearing metho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 등이 다양해지고, 가정에만 머물고 종속적이던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가족구조 내에 많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이런 변화들 중 하나로 해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한부모가 급증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Cho, Song yon
Tel : 019-572-5663
E-Mail : sycho@office.hoseo.ac,kr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1990년 1.1건, 1995년 1.5건, 2000년 2.5건, 2001 2.8건, 2002년 3.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체 가족 중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현재 9.4%이며, 이중 80%가 여성 한부모이다(통계청, 2003). 한부모가 된 원인은 이혼(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나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장혜경 등, 2001). 뿐만 아니라 2002년 현재 40대 남성의 사망률도 2.95로 여성보다 3배 많고, 이중 남성의 유배우자 사망률은 71.1%(통계청, 2003)로 사별에 의한 여성 한부모도 증가하고 있다.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1980년 33.3%, 45.0%였던 사별과 이혼에 의한 여성 한부모가 2000년 각각 56.7%, 82.4%(통계청, 2002)로 증가되어 여성 한부모는 주로 이혼과 사별에 의한 것

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혼이나 사별에 의해 남편의 부재로 인한 여성 한부모의 증가는 여성 한부모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유형을 산출하였다. 여성 한부모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혼과 사별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여성 한부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여성 한부모는 일반 가정에 비해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원의 축소 및 사회적 위축문제로 심리적으로 고립되거나 위축되는 느낌을 가지며, 그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본인과 자녀의 감정처리나 생활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권복순, 2000; 김경신, 2002; 김영희, 1996; 변화순 등, 2001; 옥선화, 2003; 옥선화 등, 2002; 장혜경 등, 2001; 장혜경, 민가영, 2002; Kissman & Allen, 1993; Lino, 1994).

우리 사회의 여성 한부모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여 이것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불충분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 한부모에게 스트레스원이 되면서 이것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여성 한부모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로 양적인 자료수집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부적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 한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양육방법이나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대상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양의 자료에 의한 연구결과들도 의의가 있지만 소수 개인들의 경험적인 의견이나 내용도 이후의 여성 한부모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문제해결 및 미래 이들의 복지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수의 여성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면접하여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나 일반적인 특성, 사회적 지원상황 및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이를 예방하고 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 한부모가 사용하는 다양한 자녀양육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 면접을 통한 질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질적인 접근방법은 개개인의 경험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등의 이해 및 삶의 방식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고, 각 사례가 지니는 독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Stake, 2000)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여성 한부모의 모-자녀관계나 생활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질적인 연구는 소수 실시되고 있다(변화순, 1996; 옥선화 등, 2002; 장혜경, 민가영, 2002; 장혜경 등, 2001).

본 연구는 가족주의 경향이나 유교적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는 지방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들 대상이므로 기존의 도시지역의 여성 한부모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원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의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한부모의 보다 빠른 정서적, 물질적 회복과 여성 한부모와 자녀가 사별이나 이혼 후 가족구성원으로서 함께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2. 연구의 배경

이혼이나 사별에 의한 여성 한부모는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한부모가 지니는 일반적 문제점과 사회적 지원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여성 한부모의 문제점

여성이 한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

하면 피하고 싶은 문제일 것이다. 원인에 관계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한부모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결함이나 취약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부장적인 가족가치관이 쇠퇴하고 남녀간의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불가피한 하나의 사회현상(김미숙 등, 2002:257-259)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인 경우 과거와 달리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비율도 이혼건수의 43.2%에 이르러 더 이상 어린 연령의 자녀가 이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평균 이혼연령도 계속 낮아져 남자 40.6세, 여자 37.1세로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3).

여성 한부모의 문제점은 개인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여성 한부모가 된 후 이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비난받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스트레스와 죄책감, 실패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상의 문제, 신체 및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 성적 욕구의 문제들을 경험한다(정현숙, 유계숙, 2001:522-524). 또한 여성 한부모는 안정된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 최하위계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가족에 비해 심리적 복지수준도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있다(최해경, 1997). 그러한 한편으로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의 경우 이혼 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더 잘 적응하며, 자신이 도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의 향상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Wallerstein, 1986)는 긍정적 측면의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성 한부모에게 있어서 힘든 문제 중의 하나가 남편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책임이어서 이들 중 78.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김미숙 등, 2000). 그러나 많은 여성 한부모는 여성의 노동시장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 등이 많아 절대적 빈곤수준의 어려움(변화순, 1996)에 처해있고, 남성 한부모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시장노동의 3중 부담은 여성 한부모가 빈곤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조흥식, 1996).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한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월 75만 9천원으로 매우 낮다(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2000). 허경옥(1995)은 여성 한부모의 자녀양육비가 절대적 액수는 적지만 일반가정에 비해 그 지출 비율이 높게 산출됨으로서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도 상당히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장혜경 등(2001)도 경제문제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비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자녀양육비나 교육비에 대해 옥선화 등(2000)은 여성 한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보상적이며, 비용적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와의 관계

여성 한부모의 또 다른 측면의 어려움은 사회적 지원의 문제이다.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관계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기능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옥선화, 2003).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여성 한부모에 대한 시가와 친정, 정부나 지역사회, 이웃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지니는 여성 한부모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원마저 부족하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녀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1차적 지원망은 부부관계지만 이것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무너지게 되면 친인척이나 친구, 이웃 등이 2차적 지원망이 될 수 있다. 사별과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는 부양자 역할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역할긴장이나 과부담 및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껴 대인관계에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변화로 남편과 관련된 친지들과의 관계는 매우 소원해지고 많은 경우에는 완전히 단절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하향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결과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연히 위축되거나 하향화될 수밖

에 없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국 여성 한부모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지원은 여성 한부모들이 지닌 인지적·정서적 특성, 사별이나 이혼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형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 의한 여성 한부모의 경우는 가까운 친지들과 멀어지는 것을 예상치 못하여 2차적인 사회적 지원망의 상실로 정서적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고독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면서 더 큰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다(정현숙, 유계숙, 2001: 524). 장혜경 등(2001)의 조사결과, 여성 한부모가 된 이후 친구관계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등 다양하였으나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진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혼한 것에 대해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하거나 남편이 있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은연중에 표현하는 등 여성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여 이를 느끼게 되면서 여성 한부모 스스로 이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 후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많아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와의 심리적 갈등도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김보경, 2001; 지은선, 2002; Simons et al., 1994; Wallerstein, 1986). 결국 여성 한부모가 지니는 어려움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져 여성 한부모와 그들 자녀와의 관계도 여성 한부모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고(Johnstone, 1990), 사춘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한부모는 자녀문제에 있어서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이 별로 없고, 가족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한다(김오남, 1999; 장혜경; 민가영, 2002)는 상반되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3.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연구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상황은 어떠한가?

셋째, 여성 한부모의 자녀문제와 자녀양육방법은 어떠한가?

1. 여성 한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2. 여성 한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여성 한부모가 자녀의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 여성 한부모가 힘들 때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와 충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첫 자녀가 중학교 이하의 연령인 여성 한부모 중 8명이 임의표집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는 34세~44세로 평균연령이 37.0세, 여성 한부모가 된 기간은 2~7년이었다. 한부모가 된 이유는 사별이 2명, 이혼이 6명이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와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특성, 사회적 지원 및 자녀양육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소수의 여성 한부모를 표집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대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구자가 선정한 면접문항을 가지고 개인당 약 2시간여 동안씩 이루어졌다. 면접은 2003년 3월 3일부터 2003년 4월 5일까지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전량 전사한 후 분석되었다.

3. 면접내용

면접 시의 일반적인 사항은 여성 한부모와 자녀의 현재와 한부모가 되었을 당시의 연령, 교육수준 및 현재 직업유형, 월평균 소득, 전남편의 양육비 지원 유무 및 정도, 주택소유현황, 한부모가 된 이유, 자녀와 아버지와의 만남 등을 질문하였다. 세부 내용 중 사회적 지원상황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고립 경험 여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발생 유무와 이에 대한 이해, 여성 한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자녀의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자신이 힘들 때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여성 한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및 문제점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1) 여성 한부모의 연령과 한부모가 되었을 때의 자녀연령 및 자녀수

사별과 이혼에 관계없이 여성 한부모가 된 것은 27세~42세였으며, 한부모 당시의 평균연령은 사별 29.0세, 이혼 34.7세였다. 이는 2000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이 37.1세(통계청, 2003)인 것과 비교하여 더 빠르다.

여성 한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연령은 1세~11세로 미취학 연령의 자녀가 8명,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가 5명이었다(자녀수로 인한 복수응답). 이는 과거 부부의 이혼이 어린 연령의 자녀로 인해 늦춰졌던 것에 비해 더 이상 이혼에 있어 자녀의 연령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음을 나타내준다. 자녀수는 대부분 2명이었으며, 사례5는 자녀가 2명이지만 부모가 각각 1명씩 나눠 양육하고 있었다.

2)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소득과 주택소유 유무 및 전남편의 자녀양육비 지원

여성 한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대부분(7명)이었으며, 2명을 제외한 6명(75%)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6명의 직업유형은 생산직과 서비스직(4명), 사무직(1명), 대학 시간강사(1명)였으며, 이들은 모두 계약직으로써 직업 지위가 불안정하였다. 또한 취업한 여성 한부모의 과다한 근무시간과 야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례	1	2	3	4	5	6	7	8
연령	34	35	39	38	38	34	34	44
한부모이유	사별	사별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학력	고졸	고졸	대학원졸	고졸	고졸	고졸	고졸	고졸
직업	서비스업	없음	대학강사	생산직	서비스업	서비스업	사무직	없음
소득(만원)	70	115	300	70	100	250	200	70
자녀수	2	2	2	1	2	2	2	1
자녀 학년	초3(남) 6세(여)	초4(여) 초1(남)	초5, 4 (남)	중1(남)	중1(여) 초2(남)	중1, 초4 (여)	초3(여) 6세(남)	유치원 (여)
한부모기간	5	6	2	3	3	7	2	2
아버지만남	·	·	만남	안만남	만남	안만남	만남	만남
남편보조 (만원)	없음	없음	60	부정기적	없음	없음	120	70
기타	친정母와 조카동거/ 임대 아파트 소유	친정오빠 월100만원, 정부 월15만원/ 아파트 소유	아파트 소유		아들 부친 양육	남동생 동거/ 호프집 고용사장	남동생 동거/ 아파트 소유	

간 근무시간 등으로 자녀들과 상호작용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5%(통계청, 2003)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관된다. 여성 한부모 8명중 4명은 비록 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혼인 경우에는 위자료로 받은 경우(사례7)도 있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0만원~300만원이었으며, 이중 호프집 고용사장과 대학 시간강사만이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다른 여성 한부모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나머지는 친인척이나 전남편의 양육비 지원이 없다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하의 저임금 수준이었다.

자녀양육비 지원은 사별인 경우 사례1은 전혀 보조가 없었으나, 사례2는 친인척과 정부의 생활비 지원이 있었다. 이혼인 경우에는 6사례 중 4사례가 전남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이중에는 부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사례4)도 있었다. 지원받는 자녀양육비는 평균 약 80만원 정도였으나 현재의 생활수준이나 자녀들의 사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여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밤에 오면 자니까. 내가 3시까지(일을 하니까)... 걔네들올 때쯤에 가니까... (중략) 한달에 70만원 가지고 생활하니까 한참 모자르죠.(사례1)
- 어머님(친정)이 돈을 많이 대주세요. 반찬하고 기본적인 양념, 마늘, 고기까지. 오빠가 다달이 백만 원씩 대주는 것이 있어요.(사례2)
- 제가 위자료나 어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양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죠. 힘든데 현실에 맞춰서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사례5)
- 제일 심한 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사례8)

3) 여성 한부모가 된 사유

사별인 경우에는 남편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전혀 예기치 못한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한부모이 되어 그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이 컸고 이를 극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는 사례5를 제외하고 모두 합의

...

이혼하였고, 그 이유는 성격차이, 남편의 외도,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폭력 등이었다. 이중 사례3은 여성이 강력히 요구하여 이혼하였고, 반대로 사례7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남편의 강한 요구로 이혼함으로써 이를 후회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할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사례4는 이혼 충격으로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사례6은 너무 일찍 결혼(20세)함으로써, 사례8은 늦은 결혼으로 인한 전남편과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혼하였다.

-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그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정신과에도 갔었어요. 자주 쓰러져가지고 병원을 갔어요.(사례2)
-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파생되었는데 성격, 외도, 폭력, 경제적인 문제 등....그러나 무엇보다도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은 믿음이 깨지면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지요. 결국 제가 많이 원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사례3)
- 성격차이죠, 뭐.(사례6)
- 한 3개월 정도 나가서 안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보니까 사내에 있는 사람이더라구요. 내가 몰랐으면 오히려 모른 척 하고 있을 건데 그게, 알았던 게 더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사례7)

4) 자녀와 아버지와의 만남

이혼한 후, 여성 한부모는 전남편과 특별한 용무가 없는 한 거의 만나지 않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겼으나 자녀들은 아버지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하고, 주말에 직접 만나거나 간혹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였다. 집에 오는 경우(사례7)에는 자녀의 연령이 어려 자녀들에게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혼한 경우 중 2사례는 여성 한부모나 자녀들이 전남편이나 아버지와 전혀 만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혼 당시의 상황이 매우 나빴다.

- 이혼한 후 2-3번을 제외하고는 매주 주말에

아빠와 아이들이 만나고 있어요.(사례3)
- 아뇨, 안 만나죠.(사례4)
- 내가 만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만난다 하면 애들은 만나게끔 해주긴 하는데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연락을 끊고 사니까. (사례6)
- 평균 1년에 한 다섯 번, 아빠가 오죠.(사례7)
- 만나는 거는 좀 그렇고, 전화는 자주 하죠, 아이하고. 어리니까, 아이가.(사례8)

2.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

1) 사회적 지원으로서의 시댁이나 처가

(1) 시댁과의 관계

사별인 경우에 남편의 사후 얼마동안은 시댁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재산상의 문제로 시댁과 마찰을 빚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과 동시에 시댁과 단절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사별한 이후 집 문제로 시댁과 다툰 이후로 시댁과도 완전히 단절되었어요.(사례2)
- 시댁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지요.(사례3)
- 시댁은 완전히 저기죠(만나지 않죠),(사례4)
- 시댁이나 이런 쪽은 다 안 만나요.(사례6)
- 시댁과는 완전 두절된 상태죠. 연락을 안하고....(사례8)

(2) 친정과의 관계

사별인 경우에는 주변의 동정적인 시각으로 친정어머니나 오빠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혼인 경우에는 자식 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거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이혼한 초기에는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정부모와 형제관계마저 단절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어머님(친정)이 돈을 많이 대주세요. 반찬하고 기본적인 양념, 마늘, 고기까지. 오빠가 다달이 백만 원씩 대주는 것이 있어요. (사례2)
- 친정에 가도 내가 장녀라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편하지 않아요.(사례3)
- 친정과는 상관이 없죠(만나고 있죠) (중략) 친정쪽의 도움을 받아요.(사례4)
- 인제 갈 때 없으니까 1년반 정도 많이 방황하고 다녔으니까 일은 해야되겠고,' 애들은 그때는 어렸으니까 돌봐줄 사람은 필요하고, 그렇다고 집에다 넣을 능력도 안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의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거기는 제일 안전하니까. 그랬는데 식구들한태 많이 내쫓겼어요. 짐 싣고 들어가다가도 많이 빠꾸 맞았죠. 쫓겨나고 뭐 오빠하고 멱살잡고 싸우기도 하고. 왜 이혼했으면 딴 데가 살지 부모님 근처에서 동네 창피하게 있냐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형제들하고는 오빠 같은 경우는 아예 의절하고 안만나고. (중략) 언니가 둘 있는데 언니들 하고 그렇게 내쫓기고 그러면서 막말로 못된 얘기도 막하고. (중략) 대신 엄마, 아버지만큼은 불쌍하고 엄마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 아파하고 막내딸인데. (중략)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럭저럭 그냥 자리 잡고 사니까 아버지도 이제 받아주시더라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는 관계가 지금 좋아요. 다른 언니나 오빠들하고는 원만치 않아요.(사례6)
- 친정엄마는 한참 후에 알아가지고 막 울기만 하시더라구요.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다시 살 마음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중략) 언니 같은 경우는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 나이에. 서른셋에 헤어지고 실컷 가서 잘 살 수 있을 건데 저 혼자 잘 살지. (중략) 누구든지 안아픈 집 없다고. 그러면서 한 동안은 살아도 그러려니 하고 인제 마음 가다듬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언니도 다 좋았어요.(사례7)

2) 사회적 지원으로서의 정부보조나 지역사회기관

자녀의 연령이 어린 상황에서 여성 한부모가 된 경우에 새롭게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기관은 없고, 정부의 모자가정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사례2), 아이들을 가정 탁아에 잠시 맡긴 경우(사례6), 본인의 이혼 소송 당시 잠시 쉼터에 머물었던 경우(사례5) 등이 있었다.

- 없어요.(사례1)
- 집에서 대주는 거하고 나라에서 조금 나오는게 있구요.(사례2)

- 아무도 없어요.(사례3)
- 제가 이혼 소송을 9개월 걸리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좀 쉼터에 가서 떨어져 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사례5)
- 잠깐 혼자 나와서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그 때 한 잠깐 몇 달 정도는 엄마가 애들을 좀 봐줬어요. (중략)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나와서 두 달 정도를 (아이들이) 남의 집에 있었어요. 이렇게 왜 들어가서 입주해가지고 맡겨놓는 집 있잖아요. 그걸 두 달 정도 했어요.(사례6)

3) 사회적 지원으로서의 이웃과의 관계

여성 한부모가 된 후 혼자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본인 스스로 이웃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웃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별과 이혼이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즉 사별인 경우에는 젊어서 혼자 자녀들과 살아가야한다는 점에 대해 동정적이어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혼인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이혼이 부도덕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다.

- 친구들이 많이 배려하는 편이예요.(사례1)
-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어요.(사례2)
-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해서.... 이혼을 미루다가 선택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극복을 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 같은 건 무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가까운 내 부모나 형제들이 그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집을 가서 못사는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는 그걸 견디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남들은 견디기가 쉬운데 정작 나랑 피붙이를 나눈 부모 형제들의 시선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사례5)
-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예전하고 틀리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처음엔 욕도 먹고 친구신랑한테 맞아도 봤어요. (중략) 그 친구의 언니들이 그런 애랑 어울리니까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중략) 그래 내가 이혼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밖에 못 보지 싶은 게 아주 싫더라구요.(사례6)
- 여행 때 혼자서 애들 둘 데리고 가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가서 애들은 모르거든요. 나 혼자서 그냥 혼자 느껴지는 거 같고.(사례7)
- 아이를 왜 요새는 뭐 저기하면 다 아빠들이 키우는데 왜 키우느냐고. 사서(고생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때 좀 야속하면서도 그게 좀 심리적으로 좀 어렵죠. 고통을 주는 거 같고 그런 말들이. 그런 게 좀 어렵죠.(사례8)

4) 사회적 지원과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지만(3사례) 여성 한부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초기에는 본인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혼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고통스러워하여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 '고립됐다' 그런 거는 처음에만 그랬어요. 1년 정도는 좀 나가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일도 하기도 싫고, 이래서. 빨리 내가 털고 일어나서 벌어야 저기하는데 그런 의욕도 다 없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구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사례1)
- 남편이 있을 때 진짜 형제처럼 좋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떠난 사람이 있고... (중략) 친목회 같은 게 있었는데 모든 게 정지됐구요. 그리고 인제 이렇게 부부 모임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자리 같은 건 제가 피하고, 말과 행동을 봤을 때 본의 아니게 나한테 잘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는 피하고. (중략)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빠도 없이 아이들이, 인제 아빠가 없음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럼 어떡해야 될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밖에) 나가질 않았죠. 처음에는 바깥출입을 안하구요, 병원갈 때만, 아이들이 아플 때만 데려갔다 데려오고 그랬어요.(사례2)
- 솔직히 이혼 전에는 이혼만 하면 모든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예요. 그러나 막상 이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렵기도 하고 때론 무기력해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사례3)
- 남이 두드러지게 나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지레 겁을 먹거나, 피해의식에 사

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사례3)
- 이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자립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런 면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사회에 나가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적막감이 올 때 사회적으로 약간 고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사례5)
-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오고, 난 딴 데 다니지 말고 집에 있다가 가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좋게 봐지지가 않더라구요. 꼬인다.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래서 지금은 친구들이고 뭐고 안 만나요. 거의 안 만나요. (중략) 이제 내 생활만, 내 시간만 즐기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친구들은 딱 끊어 버렸어요.(사례6)
- 고립은 최근에... 작년부터 초등학교 동창회가 생겼거든요. 총동창 운동회가 4월에 있는데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못 갈 거 같아요. (중략) 서울에 시댁이라도 있으니까 부모님 편찮으셔서 올라왔다가 잠깐 산다고 이렇게 거짓말 쳤거든요. 연락처는 일부러 안 적었지만 이사한다고 그랬지. 우리 집 이사한다. 이번에는 또 뭐 그런 거 만들잖아요, 연락처를. 시골학교라서 나를 기억하는 선후배가 많고 해서 좋은데 못갈 거 같아요. 그거 하나하고 동창회 모임이예요. 그러니까 옛날 알았던 고등학교 동창도 내가 주선해야 되는데 하자고 해도 나는 모르니까 빼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중략) 여기에 이사 와서 아는 사람 볼까봐 밖에도 안나갔어요. 고향사람들 볼까봐.(사례7)
-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사례 8)

3. 자녀 문제행동과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본 연구대상의 여성 한부모 자녀들은 대부분 학령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여성 한부모들은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미 청소년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1)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자녀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자녀들은 문제행동을 조금씩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자녀들의 문제행동은 사별보다는 이혼인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여성 한부모들은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교적 많이 알고 있었고,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대한 것도 자녀 쪽에서 보다는 여성 한부모가 먼저 질문을 함으로써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자녀의 문제나 생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알죠.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편이에요. 애들한테 다 물어보죠. 물어봐야 알지, 아무래도, 잘 모르잖아요.(사례1)
-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해요. 오늘 수업하면서 어려운거 없었니? 그러면 엄마 왜? 너 오늘 학교서 뭐 했어? 뭐 배웠어? 주로 그런 얘기해요, 물어보거든요. 큰 아이는 많이 알아요.(사례2)
- 아이에게 물어서 대략 알고 있어요.(사례3)
- 친구...(많이 알고 있어요?) 아니죠. 내성적이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지. 혼자 키우는 자식들은 거진 내성적이더라구요.(사례4)
- 남자친구 하나 있고, 하나는 따라다니고 있고, 걔는 만나라고 데려다 주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 친한 친구가 누구고, 그런 거는 알고 있죠.(사례6)
- 그냥 우리 아이 친구 이름, 그 아이 얼굴 알고, 그런 것뿐이 없어요. 아직은 어리니까.(사례8)

2)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들은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나타내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자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는 등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 위축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 겨울에 눈썰매장 가고, 각자의 생일에 애들 초대해주고, 그런 거. 가끔 이제 월급을 탄다 그러면 '자 모이세요. 월급 탔으니까 통닭파티 합

니다.' 그러구.(사례1)

- 애들하고 많이 토론도 하고. 뭐, 내가 여유는 없고 아빠가 없어서 그 충족 못하는 대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선 하자, 좀 힘들어도 그런 거고. 가끔 이제 바람 쐬러 레스토랑도 가고, 친정 식구들하고 모이면 이제 재작년인가? 여행도 한번 갔어요.(사례2)
-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여행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단란하게 지내는 모습을 아이들이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사례3)
-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만들고, 아니면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외식을 하고. 이제 (친정)아버지 계시는 데가 동물들이 있으니까 강아지보러 그렇게 간다던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수영장을 갔다온다던가, 영화를 같이 본다던가, 그런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찾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화라고 생각해요.(사례5)
- 날을 잡아서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애들 생일이라고 생일잔치를 해준다거나 그렇게는 안해요. 뭐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있으니까. 근데 자주 자주 나가요, 데리고 나가요. 특별하게 내가 쉬는 날이 없어서 크게 뭐 여행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토요일 같은 때는 시골집 데려가서 뭐 같이 요즘 봄 같으니까 냉이라도 캐고 들어오고. (중략) 그냥 기분 내키면 '야 나가자. 나가서 밥 먹자.' 그래요 그냥.(사례6)
- 여름에 시골을 많이 가요. 그냥 시골가면 밤에 바닥에 깔아놓고 별보고 가로등 밑에서 그런 거하면... (중략) 겨울에 가면 이제 눈사람도 직접 만들어보고 이렇게. (중략) 평소에 주말에 무조건 나오는 거 좋아해요. 마트를 가도 좋아하고 같이 차타고 나오는 거를 그걸 되게 좋아해요. 신나가지고.(사례7)
- 여행하는 거요. (중략) 차타고 여행하고 그걸 저하고 우리 딸도 참 좋아해요. 버스 같은 거, 기차 같은 거 타는 거. 여행하는 거예요.(사례8)

3) 자녀의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대부분 사별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여성 한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하여 과거에 비해 언어적인 칭찬을 과도하다 싶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나 어머니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썼다. 또한 가능한 한 자녀들 혼자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 엄마는 모든 면에서 배운다 그래요. 엄마도 피아노 과외를 하지만 엄마는 더 배워.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은 모두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들도 더 많은 공부를 하신다. 그런 방법을 그런 말로써 얘기를 하고, 서점 같은데도 아이들하고 잘 가거든요.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사례2)
-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의 격려를 많이 해줘요.(사례3)
-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구요, 미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일단 자녀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 (중략)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자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사례5)
- 자유스럽게 놔두는 편이예요. 최대한 애들 많이 생각해서 특별히 어긋난 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놔두는 편이예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해서 '아, 이게 옳구나 그르구나.' 스스로 판단하게끔 그렇게 놔뒀어요.(사례6)
- '잘한다' 그러고, 뭐 한번 만들기 했으면 진짜로 했냐, 이제 뭐 확인하는 차원이겠지만 엄마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또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멋있게 잘한다'고, '엄마 잘못하는데 넌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주는 편이예요. 전에는 그런 걸 칭찬하는 걸 잘 내가 못한 거 같은데...(사례7)
- 이쁜 사람은 이쁜 만큼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걸 강조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잘 듣더라구요.(사례8)

4) 생활고로 힘들 때 자녀에게 사용하는 방법

여성 한부모는 경제적, 심리적인 이유 등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리하여 여성 한부모가 되기 전에 비해 심리적인 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술이나 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혼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 한부모가 된 것에 대해 자녀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 생활상의 어려운 점들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사별인 경우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여성 자신이 초기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현의 정도가 많이 약화되었고, 이혼한 여성 한부모는 이혼이 자녀들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부모들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써 자녀들은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에 대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 술은 전에 아빠하고 같이 마시고, 담배는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배우게 됐죠. (힘들지만) 별로 그런 티(경제적으로 어렵다는)를 안내는 편이예요. 난 한번도 걔가 뭐 사달라는 거 갖고 '엄마, 돈 없어 안돼.' 이래 본적이 없거든요. (중략) (학원에 보내지 못해서) 속상해서 막 때리고 나서 많이 우는 편이에요. 전엔 안 그랬었는데.... 그렇더라구요.(사례1)
- 그냥 나름대로 혼자 있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솔직히.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루는 누워있는데 '내가 무슨 낙을, 뭐를 보자고 막말로 무슨 영화를 보자고 내가 이렇게 젊어서 모든 걸 감당하고 혼자서 피해를 당하며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결국은 그게 살아가는 과정이지. 어쩔 수 없이 나도 젊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대할 때는 어떨 때는 매도 들죠. 매도 들어요. 종아리하고 손바닥 두 군데. 때로는 소리도 질러요. 애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나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저는 가끔 잠을 잘 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사례2)
- 아주 힘들 때 혼자 또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술은 먹을수록 양이 늘었어요. (중략) 내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며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사례3)
- (돈이) 없을 때는 짜증나지. 준비물, 아니 저 물건 해달라고 할 때 바로 못해주고 2-3일 기다리라고 할 때 화나죠. 내가 혼자 이렇게 키워야 되나, 그땐 짜증도 나고... 자녀도 키워주고 돈만 준다면 머 재혼하는거지.(사례4)
- 이혼한 후에 술, 담배 다 배웠으니까. 다 못했는데 어렸으니까. (중략) 지금도 애들한테는 크게 짜증내고 그런 건 없어요. 짜증낼 일도 없고 사실.(사례6)
- 담배는 펴 봤어요. (중략) 짜증을 참 많이 냈었거든요. 처음에는 큰소리 치고. 근데 이제 결혼 때는 신랑 때문에 그랬고, 신랑이 좀 그러면은 괜히 애들한테 화풀이 하게 되더라구요. 그러면 안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불쌍하니까 덜 혼내요.(사례7)
- 조금씩은 했어요. 술하고 담배같은 거. (중략)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다가 너무 화나면 인제 또 울기도 하고.(사례8)

Ⅳ. 논의 및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별과 이혼에 의한 여성 한부모 중 8사례를 유의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면접하여 여성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원과 자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 한부모의 일상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질적분석방법을 실시하였고, 분석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는 사별과 이혼에 관계없이 이른 시기에 여성 한부도가 되었다. 특히 이혼인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혼함으로써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비율이 증가(통계청, 2003)하면서 더 이상 어린 연령의 자녀가 이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현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었다. 또한 이혼한 사유가 남편의 외도나 무능력,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 중 일방이나 양방의 문제로 인해 합의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성 한부모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고졸이었으며, 월평균 소득도 전남편이나 친인척(주로 친정)의 지원이 없다면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수준으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다. 이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절대적 경제수준의 어려움과 경제적 책임으로 인한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며, 일용직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선행연구들(김미숙 등, 2000; 변화순, 1996;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2000; 윤홍식,

2003; 장혜경 등, 2001; 차경옥, 2003; 허경옥, 1995; Lino, 199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 남편의 재정적 지원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 여성 한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시 자녀양육비에 대한 합법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혼인 경우 아버지와 자녀와의 만남에 있어서는 6사례 중 2사례만이 자녀들과 아버지가 만나고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단 1사례뿐이었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경우도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이고, 중학생 이상의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혼에 의한 한부모의 청소년기 자녀와 친부와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으로 나타내주었다. 아버지와 만나지 않는 4사례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만나는 것 자체를 여성 한부모들이 원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이혼여성은 전남편과 60% 이상 교류하지 않으며 교류한다면 주로 자녀와 관련된 이유였다는 장혜경, 민가영(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성 한부모들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것은 이혼한 사유가 단순한 성격차이만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폭력, 경제적 무능력 등의 부정적인 것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이혼인 경우,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친정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웃에 대해서는 여성 한부모 스스로 자신감의 결여나 심리적인 위축 및 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싫어하여 관계를 멀리하려는 경향을 나타냈고, 드물지만 지역사회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시댁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사별은 재산 문제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이혼은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부정, 경제적 무능력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합의 이혼함으로써 이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단절되었다. 친정과의 관계는 부모나 형제 등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본인 자신의 죄의식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거나 불편해져서 여성 한부모가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주로 지방 중소도시의 여성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회가 급변하고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부계중심의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고,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이 생활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의 친정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이혼 후 혼자 살아야 한다는 외로움과 소외감 및 한부모 자체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사회적 관계망을 축소시켜 삶의 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여성 한부모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옥선화(2003)의 지적과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여성 한부모는 본인들 스스로 주변 사람들의 시각을 많이 의식하면서 생활하여 이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배척 등으로 심리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느끼고 있었고, 여성 한부모가 된 초기에는 스스로 많은 사회적 관계들을 단절시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혼 후 친구들과의 접촉이 감소되는 등 사회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이것이 스트레스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던 Price와 McKenry(한경혜, 1993, 재인용)의 연구, 여성 한부모의 경우 가까운 친지들과 멀어지는 것을 예상치 못하여 2차적인 사회적 지원망의 상실로 정서적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고독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면서 더 큰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정현숙과 유계숙(2001 : 524)의 지적, 여성 한부모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사회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는 한경혜(1993)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많이 약화되었다하더라도 이들이 가장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곳은 친정의 가족구성원들이었으며, 지역사회의 지원으로는 가정위탁이나 쉼터 등의 도움도 있었다. 이는 여성 한부모에 있어서는 친정 부모가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해준다는 한경혜(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지니는 여성 한부모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부

족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그대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은 여성 한부모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 한부모가 자신들의 생각이나 정서를 함께 공유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 대상의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셋째, 여성 한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사별이나 이혼 전보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자녀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행동으로는 거짓말하기,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 훔치기,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 피우기 등의 비교적 가벼운 문제행동들이었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은 아직 갈등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가족관계에서의 문제가 별로 없다고 지적한 장혜경 등(2001)의 연구, 여성 한부모가 자녀들과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자녀와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갈등도 더 적고, 이혼할 당시의 자녀의 연령과 현재의 자녀의 연령은 모두 자녀의 이혼 후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김오남(1999)과 Amato(1991)의 연구, 이혼 후의 적응에 양육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는 정현숙(1993)의 연구, 이혼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서병숙 등(2002:120)의 지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여성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 후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많아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와의 심리적 갈등도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김보경(2001), 지은선(2002), Simons 등(1994), Wallerstein(1986)의 연구결과들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 한부모가 지니는 어려움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져 여성 한부모와 그들 자녀와의 관계도 여성 한부모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이는 이혼 후 여성 한부모로 적응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녀들도 새로운 가족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 심리적 부적응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 한부모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고 사회적 지원이 적어지면서 가능한 한 자녀들과의 관계형성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과 가까운 곳을 여행하거나 함께 외식을 하는 등 자녀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한 자녀들의 위축감을 없애주기 위해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애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녀들의 자신감을 키워주려 하였다. 이는 여성 한부모들은 자녀들과 더 빈번하게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애정표현도 더 많이 한다는 Amato(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여성 한부모들은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혼이나 사별 초기에는 심리적인 박탈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사용해보기도 하였으며,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이나 스트레스의 표현 정도는 많이 약화되었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불완전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이혼 후의 심리적 혼란으로 여성 한부모가 음주나 흡연 등이 증가한다(한경혜, 1993:57)는 지적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도 관련될 수 있다. 즉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시댁이나 친정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심리적, 경제적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본인들 스스로 그런 관계를 멀리하려는 생각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해경(2000)은 한부모가족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기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센타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강기정 · 이무영 · 김영희, 2002, 재인용).

본 연구는 8명이라는 소수의 여성 한부모들을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사례면접함으로써 이들

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자녀 양육방법에 대해 경험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대상과 이들의 지역적인 편중으로 인한 연구결과에서의 편파 가능성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여성 한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망의 부족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들 자녀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행정부 차원의 복지나 상담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여성 한부모, 사회적 지원, 자녀양육방법

참 고 문 헌

강기정 · 이무영 · 김영희(2002).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체계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공세권 · 조애저(1995). 편부모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복순(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 5-37.

김경신(2002). 한부모가정 아동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아동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p.93-110).

김미숙 · 김종숙 · 김현주 · 김혜경 · 박옥희 · 원영희 · 이경아 · 이선미 · 이선이 · 이선주 · 이여봉 · 장화경 · 함인희(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김미숙 · 박민경 · 이상헌 · 홍석표 · 조병은 · 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오남(1999). 편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복지학, 4(2), 63-80.

변화순(1996).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서병숙 · 이정숙 · 김혜경 · 이신숙 · 왕석순 · 이현(2002). 현대가족과 복지. 서울: 교문사.

양해경(2001). 한부모의 문제와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하여.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오은순(1996).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옥선화(2003).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회관계망 지원. 2003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옥선화 · 성미애 ·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학회지, 39(2), 1-13.

옥선화 · 성미애 · 이재림 · 이경희(2002). 빈곤 여성가장이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55-78.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3, 51-73.

장혜경 · 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

장혜경 · 송다영 · 김영란 · 김정훈(2001). 여성한부모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정책자료.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연구회 편(pp. 101-130). 도서출판 하우.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연구회 편(pp. 131-154). 도서출판 하우.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조흥식(1996). 한국 빈곤 가족문제의 현황과 대책: 빈곤 없는 21세기 한국. 가족관련 학술단체 협의회 학술대회 자료집, 4-20.

지은선(2002).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경욱(2003). 가계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행동 분석: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61-73.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통계청(2002).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서울: 통계청.

통계청(2003). 2002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통계청(2003). 2002년 출생·사망 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한경혜(1993). 한국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연구회 편 (pp. 76-84). 도서출판 하우.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허경옥(1995). 편모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출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6(1), 1-19.

Amato, P.(1987). Family processe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e families: The child;s pio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27-337.

Amato, P.(1991). The child of divorce as a person prototype: Bias in the recall of information about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9-69.

Johnstone, J. R.(1990) Role diffusion and role reversal: Structural variations in divorced families and children's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39(4), 405.

Kissman, K. & Allen, J. A.(1993). *Single-parent famili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Lino, M.(1994). Income and spending patterns of single-mother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May, 29-37.

Simons, R.L., Whitebeck, L.B., Bearman, J., & Conger, R.D.(1994).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by nonresidential fathers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356-374.

Stake, R. E.(2000). 질적 사례연구.(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Wallerstein, J.(1986). Women after divorce: Preliminary report from a ten-year follow-up.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65-77.

(2003. 9. 2 접수; 2003. 12. 1 채택)